2009. 8. 17 제221호

세계도시동향

서울시정개발연구원
Seoul Development Institute

세계도시동향

2009. 8. 17 제221호

목 차

문화·디자인

1. 길거리 문화예술의 대표도시로 부상 (브라질 상파울루市)
2. 이민자 예술프로젝트 지원 (베를린)
3. '공학 건축예술의 역사적 상징' 칭호를 받은 방송용 타워 (슈투트가르트)
4. 도시의 매력을 전파하는 '아트 포인트 계획' 추진 (도쿄)

산업·경제

5. '산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 시행 (도쿄)
6. 청년 창업기금 조성 (북경)
7. 170개 유망기업에 금융위기 극복 위한 자금 지원 (북경)
8. 첨단기술의 산업화 지원 (상하이)
9. 민간자본과 외자 유치로 문화산업 육성 (중국)

건강·복지

10. 노인 우대 정책 확대 시행 (북경)
11. 대학 졸업 시즌을 앞두고 취업지원 사업 확대 (런던)
12.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배리어 프리' 추진 (독일)
13.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중국)

목 차

행정·재정

14. 민간기업 출신을 공무원으로 공개채용 (도쿄)

도시환경

15. 공공시설물을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16. 2년 안에 14개 습지공원 조성 (북경)

17. 강변을 따라 대규모 공원 조성 (브라질 상파울루州)

18.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파력 발전' 검토 (도쿄)

도시교통

19. 이동 시간·비용까지 비교해주는 교통정보 웹사이트 개설 (베를린)

20.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교통 체계 개선 (북경)

21. 외곽지역의 대중교통과 문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런던)

22. 자전거 교통안전 영상물 이메일 홍보 (런던)

23.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발전연구소 설립 (독일)

24. 자동차 경적소음 집중단속 (상하이)

25. 지하철 고장에 대비해 안전시스템 강화 (상하이)

26. 온라인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상하이)

문화 · 디자인

1. 길거리 문화예술의 대표도시로 부상 (브라질 상파울루市)

○ 상파울루市가 전 세계적으로 길거리 문화예술의 대표도시로 이름을 떨치고 있음.

- 프랑스 사진작가 에릭 마레첼은 상파울루가 거리 예술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도시라고 말함.
  · 그는 상파울루 거리문화 사진만 3만여 장을 찍었는데, 그 중 길거리 벽화 사진이 1300여 장임.
  · 벽화를 市에서 지우기도 하지만, 다른 대도시와는 달리 길거리 예술가의 그림을 잘 보존하는 도시라고 평함. 파리에서는 보통 벽화가 1주일을 가지 못하는데, 상파울루에서는 몇 달 내지 몇 년까지 가기도 함.

- 2007년부터 시행된「깨끗한 도시법」에서는 모든 광고용 팻말과 그림을 금지하고 있음.
  · 불법 팻말을 설치한 광고주와 그림을 그린 사람, 땅 주인에게 각각 1만 헤알(약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데 반해, 예술작품의 경우 별다른 벌칙규정이 없어 벽화가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1980년대부터 길거리 벽화 그리기 문화가 시작되었으며, 국제적으로 유명한 벽화 예술가가 많이 배출됨.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713/not_imp401851,0.php)

2. 이민자 예술프로젝트 지원 (베를린)

○ 베를린市 문화부는 2010년 다문화 간 교류 지원을 확대하고자 이민자 예술프로젝트 공모전을 엶.

- 다문화 간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예술프로젝트를 공모하는데, 이 예술프로젝트는 베를린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만든 것이어야 함.

- 공모 대상은 다문화사회인 베를린의 문화 정체성을 발전시키고 다문화 간 교류와 대화를 유도하는 예술프로젝트임.
  · 이민자의 문화전통을 단순히 보여주기보다는 이민자의 문화전통과 현대 문화, 다문화 사회를 접목하는 내용의 프로젝트를 장려함.
  · 소재와 형식 등에서 예술성을 갖추어야 하고,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함.
  · 2009년 9월 말까지 응모할 수 있으며, 수상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당선작을 발표한 뒤 지원금을 받게 됨.

- 이민자 예술프로젝트 공모전은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문화적 시도로 평가됨.
  (www.berlin.de/landespressestelle/archiv/2009/07/28/133341/index.html)

3. '공학 건축예술의 역사적 상징' 칭호를 받은 방송용 타워 (슈투트가르트)

○ 독일 슈투트가르트市의 방송탑인 슈투트가르트 타워가 독일 '공학 건축예술의 역사적 상징'이란 칭호를 받음.

- 공학 건축예술의 역사적 상징상(賞)은 독일연방 건설부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공학 구조물에 수여하는 상임.
  · 공학 구조물이 도시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새로운 세대가 도시환경을 조성할 때 공학적 작업에 관심을 가지도록 유도하며, 독일 건축공학의 능력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상을 제정함.

- 슈투트가르트 타워는 1955년 세계 최초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립된, 높이 216.61m의 TV방송용 타워임.
  · 건설비용은 420만 유로(약 74억 원)임. 전파송출 기능뿐 아니라 관광객 유치 효과도 커 건립 5년 만에 입장료 수입이 건설비용을 넘어섬.
  · 타워 구조물로서는 당시 새로운 건축방식으로 만들어졌으며, 세계 여러 도시가 이 건축방식을 본떠 유사한 방송타워를 만들기 시작함.

(www.bmvbs.de/Presse/Pressemitteilungen-,1632.1086251/Stuttgarter-Fernsehturm-als-hi.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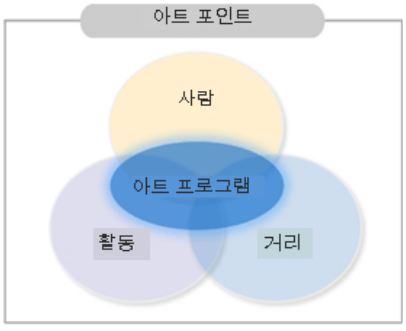
4. 도시의 매력을 전파하는 '아트 포인트 계획' 추진 (도쿄)

○ 도쿄都와 (재)도쿄都역사문화재단은 '도쿄 문화발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아트 포인트 계획'을 추진함.

- 아트 포인트 계획이란 사람, 거리, 활동을 예술프로그램으로 묶고, 지역 주민의 참가를 유도하여 도쿄의 다양한 매력을 창조, 전파하는 사업임.
  · 아트 포인트란 사람, 거리, 활동을 예술 프로그램으로 연결한 접점임.
  · 아트 포인트를 형성해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고, 무수한 아트 포인트가 모여 커다란 문화 파워를 창조함.

- 아트 포인트 계획은 다양한 분야에 문화정책을 반영하는 종합 문화정책 성격도 있음.
  · 교육, 방재, 산업, 환경,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예술과 연계된 프로젝트를 시행함.
  · 각 분야에서 새로운 시각의 정책 집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2009년부터 전개할 주요 사업은 ① 아트 포인트를 창조할 수 있는 인재 108명 육성, ② 예술·역사·경제·사회학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와 시민이 다양한 시각의 도쿄 상(像) 정립, ③ 즐기면서 방재 안전을 교육받을 수 있는 방재 예술 프로그램 등임.



아트 포인트의 이미지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r200.htm)

산 업 · 경 제

5. ‘산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 시행 (도쿄)

○ 도쿄都와 (재)도쿄都중소기업진흥공사는 타마지역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산업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젝트’를 시행함.

- 기술이 고도화되고 개발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자사 제품 개발뿐 아니라 여러 기업 간 협력 연구개발의 중요성과 관심도 커졌음.
  · 타마지역에는 독창적인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구센터, 대학, 공공 연구기관이 밀집해 있어 혁신적인 협력 연구개발의 잠재력이 풍부함.
  · 하지만 산학 간 교류와 해외시장 네트워크 구축이 미미해 세계를 선도할 지역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음.

- 타마지역의 산업 집약 현황과 미래 전망을 근거로 계측·분석기, 반도체·전자장비, 로봇 등 3개 산업분야를 집중육성산업으로 지정하고, 분야별 ‘산업 활성화 추진기구’를 구성함.
  · 추진기구는 기업, 대학, 공공 연구기관과 협력해 총괄 사무를 수행함.
  · 구체적으로는 커뮤니티 형성사업(포럼·세미나 개최, 정보 공유체계 구축), 프로젝트 지원사업(특정 프로젝트가 시장에서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을 실시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la00.htm)

한줄뉴스

● 브라질 쿠리치바市
- 관광 활성화를 위해 1950년대 중단되었던 전차 운행을 재개할 계획
- 문화·스포츠 행사, 전시회, 학술회의 참가자가 더 머물며 관광할 수 있도록 행사장에 이동식 관광안내소 설치

6. 청년 창업기금 조성 (북경)

○ 북경市는 사회적 자본이 창업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2009년 중에 청년 창업기금을 조성할 예정임.

- 市는 우선 2009년 6월 말까지 청년 창업을 위한 856개의 실습거점을 마련하고, 모두 1만 6000개의 일자리에서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이미 3000명의 청년이 이곳을 거쳐 갔으며, 100개의 기업이 대학교에서 200여 개 일자리를 가지고 창업 실습 설명회를 4차례 엶.

- 기금 최초 규모는 400만 위안(약 7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청년 창업자를 평가해 3만 위안(약 500만 원)에서 5만 위안(약 900만 원)까지 기금을 제공하고, 3년간 1 대 1 창업 컨설팅도 해줌.

(北京日報, 2009. 7. 27)

7. 170개 유망기업에 금융위기 극복 위한 자금 지원 (북경)

○ 2009년 초부터 북경市 발전개혁위원회, 市 농업위원회, 중관촌 관리위원회, 북경 경제기술개발구 관리위원회 등 6개 市 기관이 총 800억 위안(약 14조 원)을 市정부 구매 및 구조조정 보조금·투자 보조금·R&D 보조금·취업 보조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170개 중점기업에 지원함.

- 주로 전자·IT산업, 자동차, 제조설비, 생명·의약, 신에너지·환경 보호 등의 산업에 중점 지원함.

- 市는 앞으로도 금융위기에 처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타 중점산업을 지원할 계획임.

- 市는 중앙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17개 중앙 투자항목을 신설하고 총 40억 위안(약 7230억 원)을 투자·지원했는데, 이 중 중앙정부 투자액은 2억 5000만 위안(약 450억 원)임.

· 市 발전 개혁위원회는, 2009년이 내수 확장, 성장률 유지, 구조조정 등 거시 조정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자원을 적절히 분배하고 중점기업 지원을 강화해 북경산업의 종합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조화롭고 지속적인 발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zhengwu.beijing.gov.cn/gzdt/bmdt/t1066240.htm)

8. 첨단기술의 산업화 지원 (상하이)

○ 상하이市는 2009년 5월에 발표한 '첨단기술 산업화 추진 의견(2009~2012년)'에 따라 첨단기술 산업 프로젝트에 보조금 지급, 市정부 구매, 산업 밸리 조성 등으로 지원할 계획임.

- 市에서 지원하는 첨단기술 산업은 신에너지, 민용 항공기 제조업, 첨단 중장비, 생명·의약, 전자정보 제조업, 신에너지 자동차, 해양프로젝트 장비, 신소재, 소프트웨어 및 정보서비스 등 9개 분야임.

- 市가 첨단기술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기금은 100억 위안(약 1조 8000억 원)에 달하며, 향후 지원금을 점차 늘릴 계획임.
  · 市는 금융기관에 첨단기술 우수프로젝트를 적극 홍보해 금융기관에게서 대출 지원을 이끌어냈음.
  · 2009년 5월 말 공상은행, 교통은행 등 8개 금융기관이 市와 '산업 및 금융 발전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3년간 1000억 위안(약 18조 원)을 대출해 주기로 약정함.

- 상하이의 신에너지 첨단기술 산업 생산액이 2012년이면 1조 1000억 위안(약 198조 원)에 달할 전망임.
  · 이는 2008년보다 4500억 위안(약 81조 원)이 증가한 것으로, 상하이 공업 총생산액의 1~3%에 달하는 수준임.

(news.hexun.com/2009-06-15/118630931.html)

9. 민간자본과 외자 유치로 문화산업 육성 (중국)

○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문화산업 진흥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8개 중점사업 분야를 정하고, 민간자본과 외자(外資)를 유치해 문화산업을 집중육성하기로 결정함.

- 세제 혜택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추진하며 문화계 인재 양성, 법제도 정비, 시장질서 확립도 강화할 방침임.
  · 외국계 기업이 문화산업에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출 것으로 예상됨.

-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8가지 중점사업 분야는 영상물 제작, 출판, 인쇄, 광고, 엔터테인먼트, 문화 전시, 디지털콘텐츠, 애니메이션 등임.
  · 모바일 TV, 인터넷 영화TV 등 신흥산업을 발전시켜 문화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임.
  · IP TV, 영화관, 디지털 영화관, 출판 분야 산업의 지역 통합과 농촌 문화 시장 개발도 추진함.

(news.xinhuanet.com/newmedia/2009-07/28/content_11786121.htm)

건강 · 복지

10. 노인 우대 정책 확대 시행 (북경)

○ 북경市가 2009년 상반기부터 의욕적으로 시행한 노인 우대 정책의 성과가 서서히 나타남에 따라 우대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인복지 수준을 높일 계획임.

- 市는 다음과 같은 노인 우대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 중임.
  · 65세 이상 노인에게 버스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함.
  · 3개 노선의 쾌속버스 정류장에 노약자와 임산부 우선승차 표지판을 설치

하고, 모든 버스에 노약자 전용좌석을 전 좌석의 10% 이상 배치함.

· 80여 개 주차장과 280여 개 버스정류장에 휠체어 이용자 전용 승강장을 설치하고, 215개 버스종점에 안내소를 설치해 노인의 외출을 돕고 있음.

· 문화센터, 체육관, 박물관, 지역 서비스 센터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함.

· 10개 구(區)와 현(縣)은 4만 명의 노인에게 총 1200만 위안(약 21억 원)의 양로 보조금을 지급함.

(北京日报, 2009. 7. 25)

>>> 전문가 검토의견

- 북경市 노인 우대 정책과 노인 편의시설 확대사업은 노인의 일상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북경市의 관심과 실행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임.

· 다양한 시설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제공하는 노인 우대혜택은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활동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함.

· 이는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건강을 향상해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임.

- 서울시의 경우,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철도와 전철, 국·공립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는 경로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가능한 시설이 제한적임.

· 노인의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하고 이용자의 요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경로우대 제도의 확대 시행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고령친화적인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계획과 실행전략이 필요함.

/김선자 창의시정연구본부 연구위원(sunjakm@sdi.re.kr)

11. 대학 졸업 시즌을 앞두고 취업지원 사업 확대 (런던)

○ 런던市는 연간 10만 명이 넘는 런던 소재 대학 졸업생의 취업을 돕기 위해 런던대학교 취업지원센터와 협력하여 대졸자 취업지원을 위한 웹사이트

(www.london.gov.uk/graduates)를 개설함.

- 신학기가 10월에 시작되는 영국에서는 경기침체 때문에 2008~2009학년도 대졸자의 고용불안을 우려하고 있음.

- 홈페이지에서는 취업시장 현황 분석, 면접 보는 법, 이력서 작성요령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함.
  · 전공, 직업군, 지역, 연봉수준별 구인정보 검색이 가능하고 인턴과 비정규직 취업정보와 취업박람회 정보도 제공함.

- 市는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까지 최소 1000명의 인턴과 견습생을 직접 고용하려는 방침을 바꿔 고용계획 규모를 3000명 이상으로 대폭 늘림.
  · 런던개발청 주도로 런던 소재 중소기업에 200명의 대졸자와 대학원 졸업자를 단기 창의사업 연수생으로 파견하는 사업도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음.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918)

한 줄 뉴 스

- 북경
  - 최근 몇 년간 산업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첨단산업의 성장을 촉진한 결과, 에너지 이용량과 물 소비량이 각각 30% 감소

- 상하이
  - 2010년 국제박람회에 대비해 중국에서 가장 빠른(최고 시속 100㎞) 지하철 노선을 2009년 말에 개통할 예정

12.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배리어 프리' 추진 (독일)

○ 독일연방 노동·사회부는 정보·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포털사이트 '간단히 참여하기'(www.einfach-teilhaben.de)를 개설함.

- 배리어 프리 운동은 그동안 장애인이 공공장소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장소와 도시환경 개선 분야에 집중되어 왔음.

- 새 포털사이트에서는 장애인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중요 정보를 장애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수화(手話)로 제공함.
  · 대부분 수화비디오를 제공하고, 부분적으로 수화 아바타(Sign Language Avatar)를 활용함.
  · 이 포털사이트는 장애인 본인과 가족뿐 아니라 장애인과 교류하거나 업무상 관계를 맺고 있는 회사와 공공기관에서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www.bmas.de/coremedia/generator/33790/2009__07__02__einfach__teilhaben.html)

13. 수입식품 안전 관리 강화 (중국)

○ 수입식품 관리규정이 한층 더 강화된 「식품안전법」이 중국에서 새롭게 시행됨.

- 이 법은 수입식품 첨가제에도 중국어 라벨이나 설명서 부착을 의무화하고,

규정을 어길 경우 수입을 금지한다고 규정함.

· 수입식품 완제품에만 표시해왔던 원산지와 중국 내 대리상의 명칭, 주소, 연락처를 식품첨가제에도 기재하도록 함.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에서 허용하지 않은, 건강에 유해한 물질이 수입식품에서 발견될 경우 이 법에 따라 국무원 위생행정 부처에서 제재를 가하게 됨.

-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식품첨가제를 수입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검역부서에서 이를 몰수할 수 있음.

· 식품첨가제를 불법으로 수입할 경우, 시가(市價)로 1만 위안(약 180만 원) 미만이면 2000위안(약 36만 원)에서 5만 위안(약 900만 원), 1만 위안 이상이면 이 금액의 2배 이상 5배 미만의 벌금을 부과함.

- 강화된 식품안전법은 식품첨가제 수출기업에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finance.ifeng.com/roll/20090708/908156.shtml)

행정 · 재정

14. 민간기업 출신을 공무원으로 공개채용 (도쿄)

○ 도쿄都는 민간기업 출신 인재를 더 많이 채용하기 위해 2009년부터 都 직원 채용 시 경력직 채용 전형을 별도 실시함.

- 2008년까지 시행한 '전문 인재(주임) 채용시험'을 '도쿄都 직원 경력직 채용 전형'으로 바꾸고, 채용 분야를 6개에서 12개로 확대함.

· 2009년에는 자금운용, 재무, 부동산, 국제교류, 보건행정, 토목, 건축, 기계, 전기, 아동복지 분야에서 89명을 채용할 예정임.

- 최종 합격자는 주임급으로 채용하고,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일하게 됨.
  · 직무 경험이나 능력, 전문성에 따라 계장급으로도 채용할 수 있음.
  · 연령제한도 없애 2010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59세까지 지원 가능함.

- 2009년 7월 16일 접수 마감한 경력직 채용 전형에서 지원자 수는 997명으로, 전체 경쟁률이 11.2:1을 기록함.

(www.metro.tokyo.jp/INET/OSHIRASE/2009/07/20j7l600.htm)

도 시 환 경

15. 공공시설물을 친환경 건물로 개조 (런던)

○ 런던市는 경찰서와 소방서, 교통공사 등 공공시설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평균 25% 감축할 목적으로 공공시설물 42개소를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기로 함.

- 市는 2008년에 세계 최초로 공공시설물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사업을 시작함.
  · 건물 개조에 따른 에너지 절약과 연료비 절감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시설 개조를 위한 초기 투자비용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됨.
  · 市는 42개소 공공시설물 외에 추가로 58개소를 심사 중임.

- 시설 개조사업을 진행할 민간 에너지회사는 Dalkia社와 Honeywell社임.
  · Dalkia社는, 에너지 이용효율은 높이면서 건물 유지관리 비용은 줄일 수 있도록 태양에너지 패널 설치, 창문에 태양광 필름 부착, 보일러 교체, 전압 안정화, 지역 열병합 발전기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www.london.gov.uk/view_press_release.jsp?releaseid=22981)

>>> 전문가 검토의견

– 런던市는 2007년 '내일을 위한 오늘의 행동'이란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마련해 2025년까지 199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60%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

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한 바 있음.

·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에너지 공급체계를 개선하며, 건물부문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전략임.

· 42개 공공시설을 친환경 건물로 개조하고 향후 더욱 확대하려고 하는 런던市의 '선택과 집중' 전략은, 건물부문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목표를 달성해 저탄소 도시를 실현하려는 데 목적이 있음.

– 서울시는 저탄소 사회를 앞장서 실현할 목적으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와 건물에너지 진단사업을 시행해 건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에 주력한 결과, 공공건물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둠.

· '서울형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계획'(2009. 7. 2)을 마련해 건물 에너지 절약과 이용효율 증진,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우선적으로 추진함.

·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를 폭넓게 활용하려면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초기 투자비용보다 에너지 절약과 연료비 절감 등의 금전 편익이 더 크다는 공감대 확산이 필요함.

· 도시개발 과정에서 에너지 이용 목표 관리(건물의 에너지 이용 총량 관리), 대체에너지 이용 할당(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 할당) 등이 포함된 도시에너지 관리시스템(UEMS)을 조기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함.

/김운수 기후변화대응 연구센터장(woonkim@sdi.re.kr)

16. 2년 안에 14개 습지공원 조성 (북경)

○ 북경市는 2년 안에 14개의 습지공원을 만들기로 하고, 2009년 7월 23일 습지공원 조성기준을 발표함.

- 市 원림녹화국은 2009년 14개 구(區)와 현(縣)에 각각 최소 1개 이상의 습지공원을 조성할 예정임.

· 현재 정식으로 습지공원 명칭이 있는 공원은 '옌칭 야생오리 호수공원'과 '하이디엔추이후 국가 도시습지공원'뿐임.

· 과거 북경의 습지는 市 전체면적의 15%에 달했으며, 1960년대까지만 해도

12만 헥타르가 습지였음. 그런데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습지 면적이 약 5만 1400헥타르로 市 전체면적의 3.13%에 불과한데다 전국 평균치보다도 낮음.

· 북경의 습지는 대부분 교외에 분포되어 있음.

- '북경市 습지보호 행동계획' 발표 이후 각 구와 현은 인공습지 조성에 적극 나섬.
  · 2009년에 시작한 습지공원 조성사업은 지역 상황에 따라 새로 조성하거나 원래 있던 습지를 복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 공원 면적은 10헥타르 이상, 그 중 습지 면적은 8헥타르 이상으로 공원 면적의 30% 이상이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에 따라 습지공원을 조성함.

- 습지공원은 희귀 동식물 관찰과 연구를 위한 습지 보호구역, 계절별 출입금지 구역, 시민이 수생 동식물을 체험할 수 있는 습지생태 전시장과 체험구역, 편의시설 구역으로 나뉨.

(北京日報, 2009. 7. 24)

>>> 전문가 검토의견

- 습지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할 때 북경의 습지공원 조성계획은 도시 내 일반 공원과 소규모 녹지를 조성해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것보다 생태적으로 실효성이 클 것으로 판단됨.

- 서울시의 경우 인공습지 조성보다는 기존 습지지역 보호와 공원화의 방법으로 습지를 보전·관리하고 있음.
  · 가락습지, 방이습지, 난지한강공원습지, 여의도샛강습지, 용비교습지, 탄천습지 등 강변 둔치를 따라 형성된 하천습지를 보호·관리함.
  · 일부 습지지역에서는 시민을 대상으로 생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함.
  · 서울시가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한 14개소 중 5개소가 하천습지나 습지형 생태계일 정도로, 습지 보전에 적극적임.

- 2005년 서울시 도시생태현황도에 따르면, 서울의 습지면적은 서울시 전체면적의 2.47%(논을 포함할 경우 3.74%)로 북경보다 낮은 비율임.
  · 기존 습지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관리계획과 함께 인공습지 조성방안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송인주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injusong@sdi.re.kr)

17. 강변을 따라 대규모 공원 조성 (브라질 상파울루州)

○ 상파울루 州정부는 찌에떼(Tiete) 강변에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기로 하고, 7개 市와 협력개발 협약을 체결함.

- 찌에떼강은 상파울루 대도시권인 살레소폴리스에서 상파울루 동부까지 걸쳐 있는 총길이 75km에 달하는 강으로, 상파울루 도심을 감싸며 흐름.

- 새로 조성하는 바르제아스 찌에떼강 공원은 총면적이 107㎢로, 33곳에 문화예술·레저·스포츠 시설을 설치함.

- 홍수 예방을 위해 조성하는 찌에떼 에꼴로지꼬 공원은 총 17억 헤알(약 8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6년 완공함.
  · 1단계로 4억 5000만 헤알(약 2250억 원)을 들여 자전거 전용도로와 정원 공사를 진행하고, 향후 더욱 확충할 예정임.
  · 찌에떼강 주변 주택 3100여 채를 철거한 뒤 6만 7000그루의 나무를 심고, 강변도로도 확장함.

- 상파울루市 등 여러 지역에 복합 스포츠 공원 33개를 조성하고, 축구장 67개, 다용도운동장 129개를 설치함.

상파울루 도심을 감싸며 흐르는 찌에떼강

(www.estadao.com.br/estadaodehoje/20090720/not_imp405260,0.php)

한줄뉴스

● 도쿄
- 여름철 기온을 낮추려고 거리에 물을 뿌리는 행사에 재생수를 무료 제공
- 18세 이상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 고민 등을 상담해주는 창구 개설

18.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파력 발전' 검토 (도쿄)

○ 도쿄都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태양에너지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이용 확대를 도모해왔으나, 실용화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된 파력(波力) 발전을 최근 집중 검토하기 시작함.

- 파력 발전은 파동에너지를 이용해 발전(發電)하는 것으로, 미국과 유럽에서는 기술개발 단계를 거쳐 실증실험 단계에 들어섰으며, 영국은 상용 단계에 이름.
  · 일본에서도 수년간 파력 발전을 연구해 왔으나, 해양에너지가 신에너지로 자리매김하지 못해 국가 지원도 받지 못하고 실용화 방안도 마련하지 못했음.

- 都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3월까지 '파력 발전 검토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전문가를 초빙해 파력 발전 가능성을 검토함.
  · 검토회는 「신에너지법」에 파력 발전 부문 추가 검토, 파력 발전기술 검증, 사업성 검토 등의 활동을 하게 됨.

(www.metro.tokyo.jp/INET/KONDAN/2009/07/40j7l400.htm)

도 시 교 통

19. 이동 시간·비용까지 비교해주는 교통정보 웹사이트 개설 (베를린)

○ 베를린 교통공사는 베를린 시내와 市 외곽에서 이동할 때 가장 빠르게 종합적인 이동정보를 제공해주는 새 교통정보 웹사이트(www.vmz-info.de)를 개설함.

- 베를린 측량소, 교통 경보센터, 경찰, 철도, 지하철, 공항 등을 네트워크로 연결해 수집한 정보를 5분마다 업데이트함.
  · 주로 도로상황(교통정체, 공사 진행정도, 도로 폐쇄 등), 대중교통 서비스, 자전거 교통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함.
  · 이동정보는 베를린 지도와 항공사진 형태의 구글 지도로 제시하고, 개인 승용차의 내비게이션에도 서비스함.
- 이 웹사이트의 장점은 목적지로 가는 가장 빠른 이동방법을 실시간으로 안내해줄 뿐 아니라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비교분석해주는 점임.
  · 실시간 교통정보 외에도 공항 상황, 날씨 예보, 이동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음.

(www.stadtentwicklung.berlin.de/aktuell/pressebox/archiv_volltext.shtml?arch_0907/nachricht3523.html)

>>> 전문가 검토의견

– 현재 국내 웹사이트에서는 경로 선택에 따른 실시간 교통정보와 대중교통 환승정보와 함께 대중교통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까지 계산해 제공하고 있음.

– 다만, 자전거도로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아직 구축하지 못해 자전거 이용 정보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음.
·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경로와 자전거거치대 정보 등을 통합 제공하는 센터를 조만간 운영할 계획임.
· 자전거 내비게이션도 보급할 예정이라, 웹사이트에서 자전거 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김원호 도시기반연구본부 연구위원(wonor@sdi.re.kr)

20. 시민 편의를 위해 공공교통 체계 개선 (북경)

○ 최근 북경市가 발표한 녹색교통 건설 행동계획(2009~2015)에 따르면, 2015년까지 대중교통 운행률을 현재 36.8%에서 45%까지 높이고, 지하철과 버스의 수송인원을 하루 평균 2500만 명으로 늘려 도심부 통근시간을 1시간 이내로 줄일 계획임.

- 2~5환 순환도로의 어떤 지점에서도 지하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철도도 561km 연장함.
  · 지하철 배차간격을 평상시에는 최대 3~4분, 출퇴근 시간대에는 2분으로 줄여 하루 평균 수송인원이 1000만 명 이상이 되도록 함.

- 450km가 넘는 버스 전용차로를 운영하고, 도심부의 버스정류장 90% 이상을 500m 간격으로 설치하여 편의성을 높임.
  · 배차간격은 평균 3~5분으로 줄이고 출퇴근 시간대 승차율은 70%로 높여 하루 평균 1500만 명 이상의 수송인원을 확보할 예정임.
  · 지하철과 버스의 환승을 위해 13개의 종합 환승센터와 50개 이상의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환승 주차장도 설치함.

- 유동인구 집중지역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고, 환승센터 근처에 5만 대 이상의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을 1000여 개 정도 설치함.
  · 중관촌 서부 지역 등 주요 지역과 거리·역사문화 보호구역에는 보행자 도로와 자전거 교통 시범구역을 설치함.

- 市는 도심부 내의 통근시간을 1시간 이내로 하고, 市 외곽지역에서 도심부까지 1시간 이내, 북경에서 발해 경제권역인 청더市·바오딩市 등의 도심부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1-1-2'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

- 市 교통위원회는, 2015년에는 도심부의 대중교통 운행률이 45%,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50%, 지하철과 버스의 전체 수송분담률이 5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함.
  · 도심부에서의 평균 운행속도는 시속 25km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됨.

(北京日报, 2009. 7. 17)

>>> 전문가 검토의견

- 북경市도 서울시와 마찬가지로 메가시티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대중교통 부문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대중교통은 고밀 도시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데 필요한 중요 요소로,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의 질을 개선해 개인 승용차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함.
  · 서울시는, 대중교통 중심의 도시교통 체계 구축을 목표로 북경市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대부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음.

- 서울시는 대중교통 부문에서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기후변화협약 체결 등 여건 변화에 맞추어 승용차 이용을 감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기준으로 서울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지하철과 버스가 각각 34.8%, 27.6%로 둘을 합치면 60%를 넘어, 북경보다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음.
  · 대중교통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환승체계 개선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고준호 도시기반연구본부 부연구위원(jko@sdi.re.kr)

21. 외곽지역의 대중교통과 문화 홍보를 위한 포스터 경연대회 개최 (런던)

○ 런던 교통박물관과 교통공사는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런던관광청과 함께 도심(1존) 외 지역과 이들 지역의 대중교통을 홍보하는 포스터 경연대회를 '도심을 벗어나'(The Outer Limits : Beyond Zone One)란 주제로 엶.

- 다양한 매체와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도심 외 지역의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효과적으로 소개한 작품을 최종 선정할 예정임.
  · 대중교통시설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와 교통을 적절하게 아우르는 작품을

우선적으로 선정함.

· 수상작은 2009년 9월 런던 디자인페스티벌 기간에 교통박물관에서 전시함.

(tfl.gov.uk/shop)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191.aspx)

22. 자전거 교통안전 영상물 이메일 홍보 (런던)

○ 런던교통공사는 '자전거 교통안전'이란 주제로 영상물을 제작하고, 자전거 이용자와 대형화물차 운전자 등 14만 명에게 이메일을 보내 적극 홍보함.

-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람이 많아지자 이를 줄일 목적으로 제작하였으며, 교통공사 홈페이지(tfl.gov.uk/cycling)에서 누구나 볼 수 있음.

- 자전거 이용자와 대형화물차 운전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제작하였고, 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안전수칙을 홍보함.

  · 화물차 좌회전 시 왼쪽 백미러로 자전거 운전자를 반드시 확인하고, 자전거 운전자는 화물차와 항상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요 안전수칙을 소개함.

- 市는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려면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자전거 안전운전 교육을 이수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함.

  · 2008년에 대형화물차와 충돌해 목숨을 잃은 자전거 이용자는 총 9명인데, 지속적인 교통안전 교육과 홍보 캠페인으로 사상자는 감소 추세임.

(www.tfl.gov.uk/corporate/media/newscentre/12251.aspx)

한줄뉴스

- 로스앤젤레스
  - 아동폭력과 폭력 방조를 막기 위해 아동학대 조사관이 해당 가족의 범죄·교육·의료·정신건강 기록 등을 볼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정보 공유 추진

- 샌프란시스코
  - 대지진 발생 시 식수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길이 8㎞의 대형 수로터널을 항만지역의 수심 31m 지점에 건설할 예정

23.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발전연구소 설립 (독일)

○ 독일 정부는 작센州의 카멘츠市에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발전(發電) 연구소를 설립함.

- 독일 정부는 전기자동차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정하고,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1차적으로 전기자동차 산업의 성패는 성능 좋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에 있다고 보고, 배터리 생산기술을 연구하기 위한 연구기관을 설립해 5900만 유로(약 1000억 원)를 지원하기로 한 것임.
  · 연구소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개발하게 되면, 독일의 다임러(Daimler)社와 다른 3개 기업이 일정기간 기업연합을 형성해 이를 생산하게 됨.

- 독일 정부는 현재 州정부, 기업, 연구소, 대학과 공동으로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에 주력함.
  · 독일 정부가 전기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책정한 지원자금은 총 7억 유로(약 1조 2400억 원)로, 이 예산에서 연구소 건립과 연구비가 지원됨.
  · 경기부양과 새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고려하여 총예산에서 9000억 원은 경기부양 차원에서 지원함.

(www.bmbf.de/press/2611.php)

24. 자동차 경적소음 집중단속 (상하이)

○ 상하이市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전동차, 자전거 등의 경적 소음공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 2009년 7월 21일부터 9월 18일까지 집중단속하기로 함.

- 市 교통관리부가 2008년부터 자동차 경적소음 규정 위반자에게 최고 200위안(약 3만 6000원)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지만, 단속을 거의 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음.

- 市는, 내환선 안은 기본적으로 경적소음을 근절하고 내환선과 외환선 사이 경적소음은 대폭 줄이고 외환선 밖은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계획임.
  · 주요 집중단속 구간은 주간선도로, 고가도로, 병원과 학교 주변 도로, 시민 고발이 빈번한 도로구간과 지역, 외환선 밖 경적 금지지역 등임.
  · 장시간에 걸쳐 악의적이거나 고음의 경적소음이 단속 대상임.
  · 市 경찰국은 도로교통안전법을 근거로 경적소음 규정을 위반한 자동차와 대형 오토바이에 최고 200위안(약 3만 6000원), 전동차와 자전거에는 최고 50위안(약 9000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임.

(www.shanghai.gov.cn/shanghai/node2314/node2315/node17239/node17243/userobject21ai351441.html)

25. 지하철 고장에 대비해 안전시스템 강화 (상하이)

○ 상하이市에서는 하루 360만 명이던 지하철 이용객이 최근 400만 명까지 크게 증가함.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지하철 출입문이 고장 나 승객을 하차하도록 한 뒤 회송하는 경우도 자주 발생함. 市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하철에 새로운 안전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함.

- 출입문 고장 시 전문 수리원이 탑승해 자동출입문을 폐쇄하고 승객 안전을 위한 격리장치를 설치한 뒤 바로 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함.

· 지하철 내·외부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고 전문 수리원 100명을 주요 역사(驛舍)에 배치함.

· 지하철 내부 방송이나 모니터, 버스정류장 모니터로 고장노선과 원인, 배차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

· 지하철의 혼잡도를 빨강, 노랑, 녹색으로 달리 표시해 승객의 편의를 꾀함.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7/29/content_17232944.htm)

26. 온라인 지도검색 서비스 제공 (상하이)

○ 상하이市가 온라인 지도검색 서비스(www.shanghai-map.net)를 실시함.

- 市 전역의 도로 8000여 개, 주택 7000여 채, 버스노선 800여 개를 비롯해 병원, 호텔, 음식점, 슈퍼마켓 등 대형 편의시설까지 검색할 수 있음.

  · 가장 빠른 환승구간 등 교통정보도 제공하며, 관광객이 자주 찾는 인민광장, 신천지 등의 상세지도도 검색할 수 있음.

  · 이용자가 자신의 위치,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등록할 수 있고, 맛집과 볼거리 장소 등을 표시하여 자신만의 지도로 꾸밀 수 있음.

- 市는 지도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하여 市 교통지도보다 신속하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임.

(www3.xinhuanet.com/chinanews/2009-07/24/content_17188401.htm)

한줄뉴스

-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市
  - 유기농 식품의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유기농 식품 페스티벌' 개최
  -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해 전용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신종플루 의심환자만 진료하는 6개 보건센터 운영